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시각예술이 남긴 탄소발자국

은 이 작품을 비판했다. 이 글에서는 '얼음 시계'를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다. 작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실천으로 줄어든 탄소 배출량과 작품 운송 중에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자료가 없으니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다. 다만 '얼음 시계'를 보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시각예술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싶었다. 전시가 끝난 후 버려지는 가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무가 베어지고 운송되고 가공되며, 작품 운송에는 배와 비행기도 이용된다. 최근 기후 위기, 환경 파괴 등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재활용할 수 없는 나무 가벽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 전시

에 불과하고 작품 운송은 다른 방법이 없다. 작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라도 작품 제작을 위해 작가가 이동하기 때문에 탄소발자국은 남는다. 이 외에도 현수막 등 전시가 열릴 때마다 탄소발자국을 늘리는 요소는 많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늘고 있는 큰 규모의 국제 전시일 경우 탄소발자국의 양 또한 엄청나다. 시각예술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순수'라는 편견에 가려진 시각예술의 어두운 측면이다. 시각예술에 있어 탄소중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니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괜한 노력을 하기보다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작품을 만들지 않거나 전시를 열지 않는 것 외에는 탄소중립에 다다를 방법이 없지 않은가? 엄밀히 말하면 동시대 미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중립이 불가능

해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작품을 운송해 이곳저곳에서 전시하는 일은 근대 이후에 생겼다. 그 전에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작품이 제작됐고, 벽화나 부조처럼 작품이 건축물의 일부라서 작품을 옮겨 다른 장소에서 전시할 수 없었다. 작가와 작품이 이동한다고 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 수단은 없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근대 이후 예술이 자연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온 것이다. 예술은 이처럼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예술 개념과 전시 방법으로 바뀌거나 탄소중립에 다다를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다. 새로운 예술 개념과 전시 방법이 제안돼야 한다. 제주도 미술계가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서있길 기대해 본다.

올라퍼 엘리야슨의 작품 '얼음 시계'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글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린란드의 빙하를 파괴한 광태웅 광장(2015) 등에 옮겨 놓고 눈앞에서 빙하가 녹는 모습을 보게 한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빙하를 옮기면서 탄소발자국을 남겼고, 이는 작품의 주제와 모순되기에 엘리야슨이 보고서를 작성해 탄소 배출량을 밝히며 진정성을 보였음에도 미술계의 몇몇 사람들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관광업에 찬물 끼얹다

제주지역 코로나19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진정국면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 네자릿수를 돌파했다. 도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변이(BA.5)의 영향이 크다. 게다가 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켄타우로스(BA.2.75 변이)가 국내에 상륙해 심히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하루동안 1033명이 발생했다. 도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6일(1237명) 이후 81일만이다. 제주에선 지난 3월 한달간 13만6155명이 확진된 중 외엔 방역대책도 시원찮다. 4월 5만4814명, 5월 1만263명, 6월 4050명 등 감소세가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졌다. 그

게 이달 들어 8524명이 나왔다. 지난 6월 한달간 발생한 확진자에 비해 보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 코로나19 방역이 거의 풀리면서 일상을 되찾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만에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서만이 아니다. 이미 국내엔 강한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확산으로 재유행에 가속이 붙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이보다 3배나 더 센 켄타우로스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다. 도내 관광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다. 모처럼 활기를 띠던 단체관광·행사에서 벌써부터 일부 예약 취소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 외에 방역대책도 시원찮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관광업계의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 큰일이다.

열린마당

폭염 속 안전한 여름나기



임성현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는발에서 발생했고, 이 중 50.7%는 낮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대비 건강수칙으로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 등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한다.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처요령을 잘 숙지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온열사고 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53명으로(연평균 70명)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8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년간(2012~202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4.6%는 실외 작업장과

뉴스-in

“갈등 사안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달라”

오 지사 갈등관리 홍보

미리 겨울 준비 연탄 쿠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 이번 주 주간 조정 기조를 ‘갈등관리’로 설정하고 각 실국에서 소관 갈등 사항을 확인한 뒤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해 눈길. 오 지사는 이 일환으로 이번 주 강정마을, 월정마을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현안 해결과 관련해 본격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 오 지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 사안이 49건”이라며 “각 부서에서 갈등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청 각국 실국장들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달라”고 요청. 이태윤기자

○...제주시가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해 미리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탄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에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데, 대상 가구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급. 앞서 2020년 20가구, 2021년 16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원했던 제주시는 시민들에게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어려운 가구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게 주변 이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전선희기자

농어업 기후변화 피해, 총체적 대응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지구촌의 문제이자 제주 농어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먹거리를 책임진 농어업에 닥친 기후변화 위기는 갈수록 심해 행정 농어민 모두 실질적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기후변화가 농·수산물 ‘지도’를 바꾸고, 전례없는 생육이상예외의 재해도 이어지는 만큼 조기 능동 대응만이 해법이다. 제주 농어업에 미친 기후변화 피해사례를 보면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할 정도다. 농업은 감귤재배지 북상예외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농작물 재배지도를 확 바꾸었고, 발착물선 기후변화로 이상증상과 병해충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농업기술원이 작년 가을철 기온상승에 따른 고온다습한 토양 탓에 미늘 생육에 큰 피해를 준

점을 중시, 최근 과종과 비닐피복재기 개선 등을 공식 권고할 정도다. 어업도 고수온으로 어족자원 고갈에 중구 저역부수 제주 유인, 토종어종인 방어 자리돔 한치 등의 남해 동해로의 이동과 아열대 어종 증가로 어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지 오래다. 농어업이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관합동 능동 대응은 필수적이다. 행정은 그간의 원론적 대응을 지양, 농어업 피해 사례와 미래수요에 맞춘 각론적 대응을 해야 한다. 농어민은 관행 농어업에서 과감히 탈피, 기후변화에 맞는 농어업을 연구·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농어민 행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절박한 인식과 과감한 실천을 선제적으로 할 때 제주 미래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향시 탓에 미늘 생육에 큰 피해를 준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재식(제주어류양식수협 본부장) 아버지 광산김공 은수(향년 78세)께서 서기 2022년 7월 18일 12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7월 19일(화요일) ▶발인일시: 2022년 7월 20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재식 종식 머느리 변미정 명식 양희선 손 자 김주현 태우 준형 손 녀 김윤영 윤경 ※ 연락처: 김재식 010-7928-0141 김중식 010-3639-4489 김명식 010-5699-001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 탄 우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4~5년생 원터프린스 황금향 • 레드향 천혜향 • 하례조생 미니향 • 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궁천 • 일남일호 유라(1~5년생)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